

갈라디아서 강해 미

갈라디아서 개요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5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서 유래되었다(1:1-2).

갈라디아: 소아시아의 한 지방. 이곳은 비두니아의 남쪽, 갑바도기아의 북서쪽, 루가오니아와 브루기아의 북동쪽에 위치하였다. 이 이름은 '갈리아 사람들'(Gauls)에서 유래되었다. 갈리아는 현대 프랑스, 주전 수 세기경에 갈리아 사람들 중에서 사나운 자들이 소아시아로 이주하였다. 로마 제국은 갈라디아 지역(작은 규모, 남부 지역) 및 여러 지역을 포함해서 갈라디아 지방(Province)을 만들었다(북부). 그러므로 갈라디아라고 할 때 조그만 지역인지 큰 지방인지 알아야 한다. 바울은 1차 여행을 하면서 남쪽에 있는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등 방문, 이 도시들은 작은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는 땅이 비옥하고 무역이 성행한 지역이었으며 여러 민족에서 나온 식민지 사람들이 많이 거한 곳으로 유대인들도 여기에 많이 거하였다. 바울은 1차 선교 이후 주후 51-52년에 갈라디아라는 용어로 표기된 그곳을 방문했고(행16:6) 그 뒤에 다시 방문했으며(행18:23) 몇 년 뒤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는 품이 아팠지만 그들은 그를 '하나님의 천사'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복음을 수용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교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고 율법의 행위를 높이며 유대교의 의식과 기독교를 혼합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다. 그는 그들이 갑자기 진리를 버리고 떠난 것을 책망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권위와 사도직을 받았음을 보여 주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제시했다. 이 점에서 갈라디아서는 기본 골격이 로마서와 같다.

주제: 성도의 삶의 능력이 되는 복음



내용: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교로 복귀시키려는 자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와서 율법의 의식 법을 지켜야 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으며(5:2; 6:12) 또 바울의 사도직에 의문을 던졌다(1:1-12). 이에 사도는 자신을 변호하고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묘사해서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관한 한 '율법에서의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 선언서 혹은 대헌장'이라 할 수 있다. 루터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고독한 싸움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큰 영감과 위로를 받았다. 그는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의 이름인 캐더린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하였다. 갈라디아서는 6장, 149절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 오직 믿음만이 칭의와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됨을 보여 주는 것

핵심 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2:16), 핵심 단어: 자유, 핵심 구: "자유 안에 굳게 서라."(5:1),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1:4; 5:1), 영적 교훈: "자유와 권능을 얻기 위해 주님께 오라."

특징: 1. 바울이 직접 기록하였다(갈6:11). 비교 롬16:22, 2. 교회들, 3. 성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며(고전1:1-2; 고후1:1 등)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갈3:4와 5:4 비교) 4. 갈1:8-9; 2:16; 3:3; 4:15-16; 5:7, 12; 6:3, 12-15 등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구절들 가운데 하나이다. 5. 복음의 진리를 향한 바울의 울부짖음이 담겨 있다.

배경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한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 보냈다.

문제: 복음이 왜곡되었다.

좋은 소식: 복음(고전15:3-4), 이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나도 단순한 구원, 그러다 보니 종교심 때문에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생긴다(고후11:2-4).

왜곡의 핵심: '믿음+행위'를 주장하는 자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문

갈라디아서 배경

1차 선교 여행: 행13-14장

15장에는 안디옥에서 할례주의자들의 문제가 생긴다. 1-2, 바울과 바나바 등 예루살렘 방문 베드로의 증언(7-11)

야고보의 판결(19-20), 28-29, 성도들의 기쁨(30-31),

이로써 믿음과 행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제는 갈라디아와 아가야 등 여러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킴.

이에 바울은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기록함

1-5절: 바울의 권위

바울 특유의 인사말, 그런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등과 다르다. 1절을 보면 바울은 무언가 급하게 처리하려 한다. 바울은 먼저 주님께에서 받은 자신의 권위를 설명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기에 타격을 받으면 그가 전한 복음도 타격을 받고 그의 사역 자체가 흔들린다.

1절: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않았고 사람을 통해 전달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초기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특별 직무 수행자들이 있었다: 사도와 대언자, 목사 겸 교사, 복음 전도자 등(엡2:20; 4:11). 사도와 대언자는 지금 없다.

사도: 파송된 자, 사도의 자격(행1:21-22; 2:32; 3:15), 특히 주님을 보아야 한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가 되었고 이것이 종종 문제가 되었다.

바울은 행9에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직접 주님을 만났다(행9:1-6, 15; 고전9:1).

사도들은 말로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표적을 행하였다(고후12:12).

지금은 이런 사도들이 없다. 신사도들은 다 가짜다.

바울의 또 다른 권위는 직접 교회들을 세운 데서 나온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사랑하였다(갈4:12-19).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 있다: 부활의 복음(딤후2:8). 행24:15, 21

2절: 형제들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행15에 나오는 바나바, 실라 등일 것이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행 13-14에 나오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의 교회

3절: 바울의 편지의 특징, 은혜와 평강

4절: 예수님의 대속 사역, 아버지의 뜻: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다(빌2:)

이 악한 현 세상: 1. 사람(눅11:13), 2. 마음(막7:21), 3. 본성(엡2:1-3), 세상(갈1:4), 5. 세상의 신(고후4:4), 요약: 요일2:15-17

5절: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삼상6:5), 목사나 교회가 영광을 차지하면 영광이 떠난다(민14:22; 삼상 4:22).

갈라디아서 강해 ㄱ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행20:24)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

은혜 시대에는 오직 바울의 복음만 믿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갈1:1).

복음에는 몇 종류가 있다.

1. 은혜의 복음(행20:24),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롬1:16; 10:15 등)
2. 왕국의 복음(마24:14)
3. 영존하는 복음(계14:6): 7년 환난기 끝에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다.
4. 다른 복음(갈1:6-12; 고후11:4), 믿음+행위

7절: 그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다. 바울의 복음, 디모데의 복음, 유대주의자들의 복음

그것은 한 마디로 복음을 왜곡한 것이다. 복음을 왜곡하면 파멸에 이른다(벧후3:16).

다른 교리는 틀려도 구원을 주는 복음의 교리가 틀리면 안 된다. 파멸에 이른다.

8-9절: 엄청난 선언, 바울의 확신, 천사라 해도 유명한 목사라 해도 저주를 받는다.

여기의 저주는 지옥 불의 저주(롬9:3),

다른 복음 선포는 무서운 것이다. 목사와 교사들이 조심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리들: 천주교, 여증, 안상홍, 안식교, 캠벨파,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등(구원 상실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칼빈주의자들의 로드십 구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아기에게서 성숙한 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일.

바울은 부드러운 말만 하지 않는다.

현 시대 목사들의 문제: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확신이 드러날까 봐(요12:43)

다른 복음의 창시자는 마귀이다(고후11:4, 13-15). 목사들이 문제다.

10절: 믿음의 순교자들의 고백(행4:12, 19-20)

설득한다(persuade)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설득하여 친구를 삼는다는 뜻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항상 영광을 얻는다(빌리 그레함 등).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 아침의 말을 한다(행8:9-10; 24:2-8). 대개는 정치인(눅6:26)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약4:4).

사람의 인정은 바울이나 주님에게는 아무 이슈가 되지 않았다(갈2:6; 마22:16).

예수님의 본(히12:1-3)

이제(now)라는 말은 과거에는 그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한 사람임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침례자 요한 등).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는 중요치 않다. 목사들이여, “종 종 하지 말라”

바울의 결심(고전2:1-5; 살전2:3-5)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가, 바른 교회를 하는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강해 4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음(1:11-24)

11-12절: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런 곳의 revelation은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한다(행9:15). 성경 계시가 아니다.

즉 주님이 직접 위임해 주신 것이다(고전15:1-11).

은혜의 분배 사역(고전9:14; 엡3:2)

13-14절: 행9, 22, 26장을 볼 것

종교에서 득을 많이 보았다: 목사, 장로도 되고 공회원도 되고 등(행22:4-5 등)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16:2)

대표적인 사례가 회심 전의 바울: 죽이고 고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였다(26:10-11).

종교인들은 전통 중시: 전통이 말씀 위로 가면 가져다 버려야 한다(교단이나 교회의).

교회는 가능하면 사람을 괴롭히는 전통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형님 형님 하는 것).

종교(religion); 5회(행26:5; 약1:26-27; 갈1:13-14), 뜻은 종교 혹은 경건함의 행위
성경에서 종교는 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교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

회심 전의 바울의 종교: 유대교, 바리새인, 그때 행한 일은 똥이다(빌3:4-8).

하나님의 교회=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하나님(행20:28)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류: 율법 박사, 서기관, 바리새인(빌3:5-6)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딤후1:13).

15-16절: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그를 구별함(렘1:4-10; 눅1:5-17).

1. 은혜로 하심, 2. 그리스도로 인함, 3. 다른 이들을 위해 하심, 4.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심
자신의 아들을 선포할 것을 기뻐하심(딤후1:14-16).

16-17절: 부모, 일가친척, 예루살렘의 사도들 No!

바울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자신의 회심을 예루살렘에 알려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한 수순
그러면 그는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의 복음과 교회는 1-7장의 경우 100% 유대인 중심, 스테반의 죽음(8장), 드디어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선포됨. 드디어 10년쯤 지나서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 받음. 그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져갈 자는 바울로 정해짐.

그래서 그는 다마스쿠스 전도 이후(행9:19-20) 주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리비아의 광야로
갔다. 정확한 위치와 기간은 잘 모름(18절을 근거로 3년 정도 추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 모세, 엘리야, 다윗, 예수님, 침례자 요한(눅
1:80; 3:2).

고독한 시간, 인내하는 시간, 심지어 세상일에 성공한 사람들도 다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

실패와 좌절,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큰일을 잘할 수 있다.

다시 다마스쿠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감.

이때에 고후11:32-33이 생겼을지 모름

18-19절: 3년 뒤 예루살렘에 올라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않음.

행9:26-28을 보면 이때에 그는 박대를 받음. 사도들과의 교제가 없었음, 겨우 15일 지냄

20-24절: 예루살렘에서 위협을 당하고(행9:28-30) 결국 시리아를 거쳐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지방으로
감. 아마도 그는 거기서 무명으로 7년 정도를 머무름.

결국 바나바가 그를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감(행11:19-26)

이들 역시 바울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그러므로 그는 이때에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바가 없다.

사람에 관한 한 이것이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기록이다.

그는 결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지 않았다.

그의 복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에게서 왔다. 그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롬1:5; 고전11:23; 15:3).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같다. 다만 시대가 다를 뿐이다.
예수님(롬15:8)은 유대인 먼저 그리고 결국 온 세상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성경기록이라고 부른다(벧후3:15-16).
현시대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있다. 그 당시 “바울 + 모세”, 현시대 “바울 + 누구 혹은 교단”
여기에 대한 바울의 결론(갈1:9)
복음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요3:1-18). 다시 태어나면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요8:36)

갈라디아서 강해 ㄷ

갈라디아서 2장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투쟁: 예루살렘 회의(1-10), 베드로 책망(11-21)

바울의 투쟁이 없었다면 초대 교회는 유대교의 일부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바나바 등의 인물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행4:36; 11:24)

그는 바울을 도와준 인물(행9:26-28), 안디옥 사역(행11:25-26), 그리스도인(행11:27-30)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행13-14), 갈라디아 교회들 확립

요한 마가 문제(행13:13; 15:36-41), 마가의 복귀(딤후4:11)

디도는 이방인 성도, 바울에 의해 구원받음(딤후1:4), 이방인 중에서의 열매,

행15장 예루살렘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함, 고린도 교회와 크레테 교회 문제 해결(고후7; 딤후1:5)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 야고보, 요한, 베드로

여기의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행12에서 죽임을 당함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 중 하나(마13:55; 막6:3, 적어도 6명(형제 4, 자매 2), 이들은 주님의

공생애 초반부에 그분을 믿지 않음(요7:1-5). 그런데 그분의 형제들은 예수님 승천 자리에 있음(행

1:13-14).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남(고전15:5-7). 따라서

그는 십자가 사건 전에 구원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행15; 21:18),

아마도 야고보서의 기록자

1절: 14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감(1:18; 행15:2). 간 이유: 유대주의자들의 등장(행15:1)

할례 문제(창17), 할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할례의 참된 의미(렘4:1-4; 롬2:25-29), 지금도 세레나 침례를 구원의 증표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를 제시하자 문제가 더 커짐, 예루살렘 회의

2절: 계시에 의해 즉 하나님의 특별 명령에 따라

복음 전달(행15:4; 12),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함

그 이유: 전체 회의 전에 이들에게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확실히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음

3절: 아마도 이 회의에서 디도가 증인이 되어 화두가 됨. 그래서 할례 문제가 나왔으나 할례 주지 않음.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디모데의 경우 할례를 줌(행16:1-3): 반유대인/반이방인, 유대인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반면에 디도는 이방인,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면 큰 문제가 됨. 따라서 굴복할 수 없었다.

야고보도 같은 결론을 내림(행15:13-21).

4절: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어들어온 거짓 형제들, 자유를 가로채려 함.

지금도 이런 자들이 있다. 누가 구원받으면 아니라고 말하며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환

난 통과, 구원 상실 등 주장),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 자들

5절: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음. 복음에는 할례와 율법이 있을 자리가 없다(갈5:1-4).

즉 신약과 구약을 확연히 구분해야 한다. 딤후2:15

6절: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 아무도 그의 사역에 관련이 없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1,000명, 10,000명 교회, 문제가 안 된다.

목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7절: 바울은 이방인 사역,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 그 당시에는 둘 다 중요했다.

8절: 바울과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르지 않다.

다만 대상자가 달랐을 뿐이다(행15:8-11). 바울은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애를 썼다(롬

9:1-3). 어디에 가든지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다.

갈라디아서 강해 ㄴ

갈라디아서 2장

9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오히려 교제를 청함

10절: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바울의 사역의 일환

특히 그는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함(행11:27-30; 롬 15:25-27).

바른 교리는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는 데서도 나타나야 한다(약2:14-26).

11-13절: 베드로 등 유대인들의 위선, 예루살렘 회의 이후 얼마 지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올 안디옥은 그리스도인들의 요람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먹고 마심.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음. 같이 먹는 것은 같음을 뜻함.

베드로의 경험(행10), 11장(3 등, 16-18), 예루살렘 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림

심지어 바나바도 끌려감, 진리의 확신과 실천에는 시간이 걸림. 우리도 마찬가지로(킹제임스 성경)

베드로의 두려움이 일을 망쳤다(잠29:25).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결과 그는 위선자가 되었다. 신실하게 비쳐졌지만 사실 그는 두려워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도 위선으로 끌고 들어갔다.

14절: 바울의 면전 책망, 구원받으면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 없다(행15:9; 갈3:27-28).

행10의 고넬료, 행15의 예루살렘 회의의 교훈을 잊었는가? 그래서 Messianic Jews도 틀림

15절: 유대인들의 위치(행11)

16절: 사람의 칭의(Justification)는 오직 믿음으로, 바울의 공식 기록 중 첫 번째 진술

구원(salvation): 죄들에서 건져 내는 것

1.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예샤’(yesha)는 묶여 있는 데서 자유를 얻는 것을 뜻한다(‘예샤’는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의 근원).
2. 그리스말 ‘소테리아’는 ‘고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구조하는 것, 번영을 가져오는 것’ 등을 뜻한다.
3. 구원이 내포하는 의미: 구원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구원 투수, 의사, 변호사, 구조 요원, 죄인).
4. 죄인들이 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는다. 죄들의 전가(렘13:23)
5.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가 있어야 한다.
6. 구원의 방법: (1) 대신속죄: 죄 없는 피(히9:22), (2) 인격체(요1:29; 행4:12), (3) 믿음과 은혜(엡2:8-9)
7. 구원 용어: 회심(conversion), 구속(redemption), 칭의(justification), 대신함(substitution), 전가(imputation), 중생(regeneration), 성화(sanctification), 화해(reconciliation), 영화(glorification), 양자 삼음(adoption), 보존(preservation) 등

갈라디아서 강해 ㄱ

갈라디아서 2장

율의 질문(율9:2), 하나님의 답변(합2:4), 합2:4는 신약에 3번(롬1:17; 갈3:11; 히10:38)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다(칭의). 빌:3:4-11, 롬10:1-4,
롬1:16-17

義, 羊, 我

칭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행위, 유죄인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더 이상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고 그분의 호의를 입어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적 조치이다.

1. 과정이(works) 아니라 단번의 행위(faith)이다(갈3:6).

칭의를 얻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의롭다.

칭의를 얻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유지된다(롬5:1).

2.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롬10:1-5): 칭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3.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롬8:33). 사람은 무관하다.

4. 의인으로 만들지 않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5. 한번 의롭게 되면 다시 의롭게 될 수 없다(불변성). 용서와 다르다.

6. 사면과 다르다. 사면에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칭의에는 없다(시32:1-2; 롬4:1-8).

롤스로이스 차 주인(히10:17)

7. 하나님은 오직 죄인만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롬4:5).

8.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칭의의 필요성(롬3:3)

1.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롬1:29-32; 2:5-16; 행17:31), 롬2:6-10

2. 이때에는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롬2:16).

3.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오직 의로운 자들만 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다.

4. 그런데 문제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롬3:9, 23).

5. 그 결과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정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칭의의 방법

1. 믿음에 의해(롬5:1). 유일한 방법, 민21의 숫 뱀(민21:9; 요3:14)

2. 은혜에 의해(롬3:24; 딤후3:7, 참조 엡2:1-10)

3. 사람은 무죄한 자만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유죄인 자만 의롭다고 하신다.

4. 사람은 자기 의로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하신다.

칭의의 결과

1. 죄의 형벌의 사면(행13:38-39; 참조 롬8:1, 33-34)

2.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한 호의의 회복(롬5:1-11)

3.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롬4:3, 23-24; 고후5:21)

4. 의인이 되어 양자가 받을 모든 복에 참여한다(롬8:14; 갈4:4)

‘of’와 ‘in’의 용례: 율법의 행위 및 그리스도의 믿음의 of, faith와 believe

1.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works of the law)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faith of Jesus Christ)은 서로 대비되며 나온다. 여기서 of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먼저 소속의 of로 읽으면, ‘율법에 속한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이 된다. 다음으로 목적격의 of로 읽으면, ‘율법을 행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된다. 두 읽기 모두 문법적으로 가능하며 결국 같은 의미를 가리킨다. 일관성 있게 보려면 두 표현의 of를 동일한 방식으로 읽는 것이 합리적이

- 다.
2. 한편 킹제임스 성경은 'faith in Christ'의 형태로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행 24:24; 갈 3:26; 골 1:4 등),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faith in Christ)이 목적격의 of와 동일한 의미임을 보여 준다.
 3.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도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부른다. 그분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으며, 그 믿음의 길을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대신 믿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원형을 먼저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우리 믿음의 근거와 완성이 그분께 있다는 뜻이다.
 4. 전치사 of는 다음과 같이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 a. 소유 - 성도들의 인내(patience of the saints, 계14:12); 믿음의 방패(shield of faith, 엡6:16); 성령의 검(sword of the Spirit, 엡6:17).
 - b. 기원 - 믿음의 의(righteousness of the faith, 롬4:11); 물의 위험(perils of waters, 고후11:26); 성령의 열매(fruit of the Spirit, 갈5:22).
 - b. 동격 - 할례의 표적(sign of circumcision, 롬4:11); 장막 집(house of tabernacle, 고후5:1); 주의 이름(name of the Lord, 롬10:13).
 - d. 재료 - 고펀나무로 만든 방주(ark of gopher wood, 창6:14); 철장(rod of iron, 시2:9); 금으로 된 머리(head of gold, 단2:38).
 - e. 목적격 :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fear of the LORD, 잠1:7); 영을 괴롭게 하는 것(vexation of spirit, 전1:14); 돈을 사랑하는 것(love of money, 딤후6:10). 예를 들어 창2:9의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하면 초등 번역이 된다. 이런 경우의 of는 목적격으로 쓰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해야 맞는다. 즉 fear, love, know, vex 등과 같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의 명사형이 of와 함께 쓰일 때는 많은 경우 목적격으로 해석해야 한다. 계3:14의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들은 of를 소유격으로 보아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 즉 '창조물 중에서 처음 지어진 존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의 begin 역시 타동사이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분'으로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된다. 사실 성경의 전체 구조를 보면 후자가 타당하다(요1:1-3).
 5. faith와 believe(2:16):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롬 10:17). 복음이 선포될 때 죄인이 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believe), 즉 영접하는 것(receive)과 그 마음 안에서 믿음(faith)이 생겨나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그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롬 1:17).
 6. 엡2:8을 잘못 해석하면 운명론이 된다(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런 구절은 롬10:9-10, 17 등과 함께 읽어야 한다(듣고 믿어야 믿음이 온다).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받는다: 신약 성경의 99%
 믿을 자가 정해져 있다: 약 1% 정도,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 예정론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 강해 맴

갈라디아서 2장

7. 전치사 in의 번역 및 용례

- a. 영어에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형용사는 'enjoy', 'delight', 'rejoice', 'joy', 'pleased', 'joyful', 'glad' 등이 이런 동사/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하면서 대개 'in'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 b. 롬7:22, For I delight in the law of God after the inward man: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홍정역)
 - c. 눅3:22, And the Holy Ghost descended in a bodily shape like a dove upon him,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which said, Thou art my beloved Son; in thee I am well pleased.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킹제임스 홍정역).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한글킹제임스). No!!!! I enjoyed in swimming.
 - d. 시35:9, And my soul shall be joyful in the LORD: it shall rejoice in his salvation.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이다(홍정역).
 - e. 'rejoice'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위의 시편35:9에 'rejoice'가 있는데 여기서 '내 혼이 그분의 구원 안에서 즐거워하되'로 하면 오역이다. 'glad'와 'rejoice'가 같이 나오는 야1:4를 참조 Draw me, we will run after thee: the king hath brought me into his chambers: we will be glad and rejoice in thee, 여기서도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로 해야지 '당신 안에서'로 하면 우스운 번역이 된다.
 - f. "This is the day" 복음 찬송(시118:24). This is the day which the LORD hath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여기서도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 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
 - g. 결론적으로 말해 '기쁘다', '즐거워하다'는 의미의 단어는 대개 목적어를 취하면서 'in'을 수반한다.
 - h. 'glory'도 목적어를 취할 때 'in'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갈6:13, For neither they themselves who are circumcised keep the law; but desire to have you circumcised, that they may glory in your flesh. 육신을 자랑한다.
- I. faith와 believe, trust도 in을 취한다.



17절: 믿음만으로 칭의를 얻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죄를 조장하시는 분
“베드로 네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없다.

18절: 헐었던 것은 율법(백추감사절, 십일조, 각종 유대교 관례 등), 이것을 다시 세우면 범법자
“지금까지 네 말을 기억해 보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된다고 하지 않았냐?”

19절: 법을 통해 법에 대하여 죽음(롬6:2, 11; 7:4).

바울은 자기가 의지하던 율법을 더는 의지하지 않음. 그는 죽어서 율법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칭의에 관한 한 율법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

20절: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구원받으면 새사람이 생긴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지금도 달려 있다.

새사람이 살아 있다. 롬6:3-4,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히12:1-2).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라>, 풀 깎는 기계

21절: 율법을 통해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

갈라디아서 3장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구원 경험을 상기시킨다.

1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리석은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롬10:4),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났다.

교회 안에 비진리를 유포하는 자들이 있다.

2절: 그들은 성령님을 받았다(2-4). 성도는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롬8:9).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을 받았느냐?

말씀 선포를 들음으로, 율법으로는 불가능(롬8:3-4)

선포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죄를 확증해 주시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요16:7-11).

죄인은 성령님께 저항할 수도 있고(행7:51) 항복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의 침례와(고전12:12-14) 봉인과(엡1:13-14) 내주가 있다(요14:16; 고전6:19-20).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분 안에서 걸어야 한다(갈5:16, 25).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엡4:30).

잘못하면 그분을 억누르게 된다(살전5:19). 그래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 명령이다(엡5:18-21).

3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결국 육체로 완전해지려는 것,

여기의 육체는 옛 성품

육체적 출생: 아버지와 어머니, 영적 출생: 성령님과 말씀

일단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다 있다. 다만 자라기 위해 음식, 물 등을 먹는다.

태어난 뒤 한 달 지나 귀, 두 달 지나 눈, 세 달 지나 손발을 받는가? No!

4절: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느냐?

초대 교회 성도들(유대인, 이방인 모두)은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크게 받았다.

5절: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다. 1-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나? 율법의 행위냐? 할례냐?(롬2:28-29), 과거에 술 먹고 허랑방탕한 삼을 살다고 돌이키니 핍박이 많다(벧전4:3-4).

갈라디아서 강해 4

갈라디아서 3장

6-14절은 성경에 근거한 설득 논리이다. 즉 주관적인 증거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넘어감

6절: 아브라함의 칭의(창15:1-6), 누구의 글인가? 율법을 준 모세의 글

칭의(롬4:11, 22-24)는 전가 행위, 전가(imputation)의 뜻

7절: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은 따로 있다.

육적 자손이라 해도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마3:9; 롬3:1-5, 6-8, 9-12).

구원은 유전되지 않는다.

8절: 창12:3 인용,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바울은 하나님을 성경 기록이라고 말함. 이것이 글자이지만 안의 내용은 영이다(요6:63).

하나님의 선포를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의 이교도들에게 선포함.

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행15:9-11)

9절: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에서 옴(창15:6, 18). 그러므로 믿음의 후예들이 동일한 복을 누림

원래 창12:1-3의 복: 민족, 이름, 복 자체,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복은 메시아(갈3:16)

10절: 율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정죄해서 저주하는 것(신27:26), 고후3:7-9

율법은 사람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약2:10-11).

11절: 아무도 율법으로는 살 수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합2:4).

법 지키는 것으로는 살 수 없다.

12절: 믿음과 행위는 일치할 수 없다. 원래 율법은 완벽하게 다 지키면 살 수 있다(레18:5).

율법은 '행하면 산다', 은혜는 '믿으면 산다', 완전히 다른 것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기쁨이 없다. 계속해서 두렵다.

13절: 율법은 저주하는 데 쓰인다(신21:23).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자의 몸을 나무에 달아놓아 수치스럽게 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사 우리를 구하셨다(고후5:21).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구속되었다(redeemed).

즉 속죄 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사셨다(고전6:20).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임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님을 얻는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율법주의에 빠질까? 자기 의, 속임수의 꼬임(3:1),

율법주의는 육신을 자랑한다: 성경 암송, 기도, 금식, 종교 행위 자랑(눅18:9-14)

율법주의자는 무언가 멋있게 하려고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 단순해서 지겨움. 그래서

오감을 기쁘게 해 주는 무언가를 창안함(록 음악, 경배와 찬양, 헤븐리 터치 등).

그 결과 항상 자기를 남과 비교함: 교회 연수, 헌금, 봉사, 주차 관리 등,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의롭게 되려 하면 오산이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

갈라디아서 강해 10
15-18절: 불변하는 약속

지금까지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여러 군데 인용하였다. 그러면 율법과 약속의 관계는 무엇인가?

15-18절에는 약속/언약이 여러 차례 나온다(창12:1-3의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의롭게 됨 포함(갈3:6-9)

창12의 약속은 주전 2000년경, 율법은 주전 1491년경에 주어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그러므로 약속은 율법에 의해 폐기/변경/취소되었다.

15절: 사람의 언약도 확정되면 취소하지 못한다. 약속의 두 당사자, 추후에 누가 그 약속을 바꾸지 못함,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런데 실제로는 100% 하나님이 하신다(창15:12-17)).

16절: 8절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다.

씨의 역사: 창3:16 사탄의 씨, 여자의 씨, 가인과 아벨,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알곡과 가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여러 씨가 아니라 한 씨를 통해 이루어진다.

17절: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한 약속은 모세라도 취소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

430년의 수수께끼: 출12:40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sojourning) 430년, 여기서 sojourning은 정처 없이 다닌다는 뜻,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점 BC 1921

갈대아 우르 이동부터 야곱의 이집트 행: 총 215년(아브라함 75세, 100세 이삭, 이삭의 60세에 야곱 출생, 야곱이 이집트에 갈 때 130세, 총 25+60+130=215), 실제 이집트 기간 215년

18절: 그 상속 유업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다.

19-22절: 율법의 목적

율법이 주어질 때의 광경(출19), 심지어 모세도 무서워 함(히12:18-21)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은 조금 밋밋함(창15). 무언가가 빠진 것 같다. 위엄이 없다 등등

19-20절: 율법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범법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이때에 구약이 끝난다(롬10:3).

이제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성취된다(롬7:4; 8:1-4).

모세를 통해 천사들에 의해(행7:53): 율법은 중재자가 필요하다. 즉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천사들 그리고 모세, 중재자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중재자가 필요 없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21절: 율법은 결코 약속들에 위배되지 않는다.

율법은 원래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

22절: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죄의 직무,

거룩하다(롬7:12). 다만 사람이 지키지 못할 뿐이다. 거울과 같다.

그 이유: 그래야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음(롬8:3).

율법의 좋은 점: 죄 지적, 나쁜 점: 잘못하면 그것을 통해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하게 됨

23절: 믿음(그리스도의 믿음의 경륜)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음

구약시대에도 개개인의 믿음이 있었다. 이제는 믿음이 확연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

24-25절: 율법은 훈육선생,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감독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중

아이가 어릴 때에는 상속자라 해도 훈육 선생 아래 있음(4:1-2)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조정해 줄 뿐이다.

26절: 훈육선생은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만 필요하다. 율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가 오면 끝이다.

율법의 요구 조건을 보며 메시아의 필요를 느끼게 됨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됨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율법을 구하고 있음

27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롬6:2-7; 갈2:20) 그리스도를 입었다.

침례는 하나 됨의 표식: 먼저 성령 침례, 물 침례, '입는다'의 의미: 누더기를 치우고(사64:6) 완전한 옷을 입는다. 그리스 문화: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른 옷을 입는다.

28절: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 비유대인, 남녀노소, 빈부귀천(롬10:9-13)

29절: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영적 보상의 상속자
약속의 상속자(롬8:16-17).

결국 구약은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롬15:4; 고전10:11-12): 구약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구약은 그리스도의 예비,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나타남,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삶

갈라디아서 강해 11

갈라디아서 4장

구원 받은 이후에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성장 불가, 그리스도로 충분함
양자 됨(1-7절)

우리는 다시 태어남(regeneration)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영적인 상태는 베이비(baby child)

그러나 위치는 장성한 아들, 장성한 아들이어야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누림.

로마의 입양은 지금과 조금 다름, 벤허

베이비는 아들이라도 어릴 때는 노예의 인도와 보호와 훈육을 받음.

장성한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 양자 삼음(adoption).

1-3절: 과거의 유대인들의 상태,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 있음, 즉 초등학생임.

율법으로는 그것을 벗어나기 힘들

우리도 과거에 비슷함(엡2:1-2), 3:24의 훈육선생, 가정교사, 감독하는 자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2), 그리고 후에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가는 중(창24)

4-5절: 예수님이 오신 때는 충만한 때: 2절의 아버지가 정한 때

로마의 길, 유대인들의 회당, 언어 등이 복음을 나르기에 가장 적합한 때
여자의 씨(창3:15)

율법 아래 오심: 여전히 구약시대, 신약은 십자가 사건 이후(히9:16-17)

목적: 유대인 구속 및 우리 입양(눅2:32; 요10:15-16; 롬15:8; 히9:15-17)

입양: 장성한 아들, 자유, 기쁨, 상속자

6절: 아들, 아바 아버지, 대단히 중요한 교리,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구하는 것

1. 기도할 때 누구를 부르면서 기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막14:36, "아바, 아버지여..."

2.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분이 아버지인줄 잘 몰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요5:17-18).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이!'

※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유 —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스라엘)뿐이었다.

3. 아버지(Father)는 완전히 새로운 계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오셨다(요1:18; 14:6; 눅11: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요일2:23).

4.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경배한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경배한다(요4:23).

아버지는 우리를 낳은 분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의 영을 보내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갈4:6).

◎ Abba (아람어) - 아빠, '아빠', 어린 아이들의 친숙한 표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구원받은 신자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버지가 같다(히2:11).

5.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롬8:14-15절).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다(요8:44).

6. 당신은 아버지를 아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아버지께 가서 간청해 보았는가?

※ 자식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마7:8-11).

내가 누구 아들인지 잊지 말자.

‘아버지’는 단순히 신학적 호칭, 이론적-추상적 호칭이 아니다.

‘아바,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은혜다.

우리도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갈 때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다(고전4:15).

7.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요17:3).

간청할 때 솔직하게 말하라.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뭐든지 값없이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구원도 값없이! 생명수도 값없이! 모든 것을 값없이!(롬8:32):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선물을 받으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은혜 받았다! 값없이 선물을 받았다! 공짜, 무료, 거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대가를 치르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날로’ 먹는 것이다.

탕자와 아버지: 탕자는 ‘품꾼’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눅15:21).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대우하셨고 아버지의 식탁에서 거저 떡게 하셨다.

8.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 가는 과정이다(고전2:12).

이것을 모르면 탕자의 형처럼 된다(무언가 있으므로).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은 멀었다.

9. 거저 받은 사람이라야 거저 줄줄 안다(마10:8).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로 거저 받으라.

‘아바 아버지’에게 뭐든지 달라고 하라: 은혜, 구원, 일꾼, 건강, 재물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자.

7절: 아들이면 상속자(롬8:16-17)

갈라디아서 강해 1권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들의 과거 상태(살전1:9)

9절: 자유를 얻은 뒤에 왜 거지 생활로 돌아가 속박으로 돌아가려느냐?

1. '천한'(beggarly), 거지 생활
2.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알려진다. 부자와 나사로,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10-11절: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 월삭(새 달), 유월절, 맥추감사절, 안식년, 희년

1.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것이 영적 성숙의 잣대는 아니다.
2. 롬14-15장, 1절, 2절(음식), 5절(날), 15장 1절
3. 혹시 헛수고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12절: 너희와 같이 되었다. 유대인임에도 이방인처럼(고전9:20-22)

1. 그러니 너희도 이 문제만큼은 나처럼 되어라. 할례 불필요, 율법주의 불필요
2. 너희가 내게 다른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은 없다.

13절: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이들에게 선포할 때 바울은 몸이 아팠다(고후12:7).

14절: 바울의 병은 시험거리, 그런데 그들이 그를 귀하게 받아들임

1.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님같이(마10:40)

15절: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기뻐하고 복된 일로 여겼다.

1. 심지어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하였다. 아마 눈병

16절: 진리를 말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잠27:7 2:14의 베드로 책망 참조)

1. 킹제임스 성경, 문자적 해석(세대주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신약 교회, 7년 환난기 불통과, 베리칩

17절: 17-18의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

1. 그들은 사모하여 영향을 미치려 하지만 좋지 않다.
2. 그들은 바울에게서(성경에서) 성도들을 떼어놓으려 한다.
3. 좋은 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언제라도 좋다. 다만 잘 구별해야 한다(책, 동영상, 설교 등).

19절: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야 한다(엡4:11-15).

1. 성도들의 일평생 과제, 언행의 성화 열매

20절: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며 염려의 목소리를 신뢰의 목소리로 바꾸고 싶다.

1. 이유: 바울의 의심,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걸려 넘어감

구약의 사례 비교(21-31절)

21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데 그러면 율법은 무어라 말하느냐? (모세의 글 창세기)

22절: 창16:15, 창21:2, 사실 아브라함은 그두라에게서 자식들을 더 낳음(창26:1-6)

아담도 가인과 아벨, 셋 말고 더 낳음(창5:4), 가인의 아내 문제

아브라함의 일생: 75세(가나안), 85세(하갈), 99세(아들 약속), 100세(이삭), 103세(젓페기, 이스마엘이 이삭 희롱)

23절: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사라의 꾀에 의해 하갈에게서 남(창15:5, 16:1-2),

이삭의 특징

1.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태어남
2. 부모에게 기쁨을 가져다 줌. 이름=웃음
3. 태어난 뒤 자라면서 젓을 땀다. 성화(히5:12-14)
4. 핍박을 받았다.

24-25절: 그것들은 풍유, 어떤 일들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비유, 여기서는 노예 상태와 자유

1.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나타낸다.

2. 하갈은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하게 하는 자(행15:10), 즉 율법의 예표
3. 시내 산, 땅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소, 성전, 제사장, 각종 규례
4. 여기 속한 자들은 자기 아이들과 함께 속박 가운데 있다.
5.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이브도 은혜의 관계로, 아브라함과 은혜로, 출애굽도 은혜로, 후에 율법은 더하여졌다(갈3:19).

26절: 위의 예루살렘, 교회

1. 원래 예루살렘은 예배드리는 장소, 과거에는 의식과 규례로. 지금은 영과 진리로(요4:22-24)
2. 신약 교회의 특징: 자유, 영혼의 자유
3.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 즉 우리는 다 교회에 속한 자들, 히12:18-24

27절: 사54:1, 이것은 원래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

1. 이방인들은 과거에 황폐한 자로 지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여자로 살았다.
2.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3. 교회의 주축은 이방인이다.

28절: 결론,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이다.

29절: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였다(창21:9-10).

30절: 그 결과: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내쫓겼다(창21:14).

1. 율법주의 혹은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다:
2. 타협할 수 없다: 아브라함과 사라
3. 내쫓아야 한다.
4. 율법주의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31절: 우리는 자유인이다. 다시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

갈라디아서 강해 13

갈라디아서 5장

4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우리는 자유로운 자의 아이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바울의 은혜 교리는 위험하다.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난장판이 된다!”

지금도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교회나 목사가 많다.

롬6:1-2

5-6장에서 바울은 교리에서 실제적 적용으로 넘어가며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킨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불법의 반역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런 일 불가능 규례와 규칙으로 얽어맬 때 이상의 질서와 평안이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코 반역자가 될 수 없다.

율법주의자는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인도와 순종이 있다(롬8:4, 14). 이로써 율법의 요구들이 성취된다.

1.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를 얻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남.
2. 성령님께서 사람을 조정하고 인도해 주신다.
3.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사랑으로 남을 섬기게 된다.
4. 그 결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5. 사랑침례교회가 산 증인: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의 자유 속박하지 않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침 교회의 성장, 성도들의 기쁨(통영, 광양), 언행의 변화
6. 그런데 이대로 안 될까 봐 염려하며 율법주의(각종 법규)를 만들고 속박하는 교회가 많다.
7. 이런 교회의 특징: 그런 규칙을 잘 지키면 영적인 사람,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
8. 많은 경우 규칙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영적’, ‘비영적’을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다.

1절: 갈라디아서 교리 총정리

율법은 혼욕교사(3:24), 노예 여자(4:22), 속박의 멍에(행15:10)

갈라디아 성도들은 죄 중에 살며 우상숭배하다가 노예의 속박의 멍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게 됨(마11:28-30)

종교와 율법의 멍에는 지기 힘든 짐

그리스도께서 속박의 멍에, 정죄의 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롬6:14).

‘영혼의 자유’(soul liberty), 침례 성도들의 가장 큰 가치

이 말은 결코 자유방임주의를 뜻하지 않는다. 무교회주의, 무법주의 No!

요점: 율법주의의 속박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누리면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많다(북한 탈주자처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감

2절: 다시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롬10:4). ‘다 이루었다’가 공허한 말이 됨.

3절: 할례를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약2:10-11).

주님의 비유(눅7:36-50),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주님이 둘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다(7:42).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받게 되었다(엡3:8), 기도, 지혜, 영광, 부활, 휴거, 천국 등 그런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율법으로 사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대신 육체를 의지하겠다는 것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온 율법이 아니라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영적인 사람으로 군림함 율법의 일부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놓인다(갈3:10).

좋은 예: 속도위반, 위반자의 말: “강간, 살인하지 않았다.” 소용없다.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와 무관하다. 바리새인, 율법학자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구원을 잃는가? No!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의 의미

여기의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4:6, 28, 31), 구원 상실 No!

이 말은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 ‘은혜+육체’의 영역으로 들어감을 뜻함, 즉 율법주의 구원받은 뒤 율법주의자가 돼도 구원 사실 No!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 역시 죄 중의 하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된 이유: 꾀에 빠졌다(갈3:1). 그래서 초등 원리로 돌아갔다(갈4:9). 그 결과 율법주의의 속박이 그들을 얽어맴(15절 참조).

행위에 끝이 없음

갈라디아서 강해 14

갈라디아서 5장

5절: 은혜로 사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 휴거, 부활, 우리는 성령님 통해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소망한다.
율법은 초림을 기다리게 하였지만 재림은 No!

6절: 그러므로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고 오직 믿음만이다(고후5:7).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7절: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방해함(3:1).

달리기 게임에는 오직 시민들만 들어감.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
다만 지금 경기장 내에서 어려움이 생김
바울이 처음에 그들에게 갔을 때 예수님처럼 그를 맞음(갈4:14), 복음을 수용함
잘 달리는데 누가 나타나 다른 길로 가게 함

8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고전5:6-8).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죄를 나타낸다. 출12의 유월절, 무교절의 누룩 제거

교리의 누룩: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마16:6-12)

누룩은 그냥 두면 결국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율법주의, 교리의 교만이 들어가면 결국 다른 사람의 영성을 비방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다.

그래서 누룩이 아예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한다.

10절: 그런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한다.

율법주의, 교만은 끝내 패망한다.

11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 바울이 이런 것에서 자유로우려면 “할례, 율법 다 좋다”고 하면 된다.

12절: 모임에서 아예 잘려나기를 원한다.

개역: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거세, 오리겐 이대로 시행)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이다.’(요1:16)

교회 안에서, 삶에서 항상 은혜로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3절: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

13-26절은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특성을 보여 준다.

이 자유는 성령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침례, 봉인, 내주, 인도, 확신, 성화의 열매

우리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 (1)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2) 제대로 하려면 율법주의, (3) 균형
킹제임스 성경, 자유 획득, 그 뒤 방종하는 사람이 많다. 예배 무시, 헌금 무시, 옷차림, 언행 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유를 누리도록, 그런데 이 자유로 방종에 빠지면 안 됨(유4).

그러다 보니 자꾸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자유가 들어가면 방종 불가능

자유+사랑=섬김, 자유-사랑=방종

기독교의 핵심: 섬기는 것(막10:45), 유대주의자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였다.

섬기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롬13:8-14).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롬5:5).

14절: 율법의 핵심 두 가지: 마22:34-40, 섬김의 사랑이 없으면 신앙 행위 무용지물

15절: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결국 물고 뜯게 되며 이로써 모두 망한다.

16절: 다툼과 분열의 해결책,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개역성경처럼 ‘행하라’가 아니다.

그래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즉 사랑/섬김이 없으면 육신의 탐욕대로 사는 것
성령님과 육신은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서로 공존할 수 없다.

여기의 육신은 결코 몸을 뜻하지 않는다. 사람의 몸 자체는 죄성이 없고 중립이다.

다만 성령님이나 옛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대로 행한다.

17절: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대, 기호가 완전히 다르다. 양과 돼지(벧전2:19-22)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래서 구원받으면 심각한 갈등이 생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갈등이 없다(롬8:9)

육신(옛사람)이 강하면 바른 것들을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롬7:15, 19), 비록 우리가 이길 수는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18절: 육신은 율법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여기서 벗어난다.

즉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따라야 한다(시40:8).

19-21절: 육신의 행위(막7:20-23; 롬1:29-32 등), 육신은 행위(일)는 만들어 내도 열매는 No!

간음, 음행, 부정함(무엇이든 더러운 것), 색욕(외설, 호색), 우상숭배(하나님 이상으로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 마술, 증오(자기만 옳다고 하며 모든 것을 미워하고 도전하는 것),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댐 등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습관/상습범(고전6:9-11),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역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을 항시 할 수 없다.

이런 습관을 버리려면 십자가에 애착과 정욕을 못 박아야 한다(2:20; 6:14).

우리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못 박는다(롬6:11).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롬8:12-14; 롬13:14).

갈라디아서 강해 15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성령님의 일 (1) 우리 대신 율법 성취(롬8:3, 9), (2) 육신을 이김, (3) 열매 맺음
육신을 이기고 나쁜 일을 안 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즉 적극적으로 선한 것이 나와야 한다.
간음, 살인 등 안 하는 것 이상의 선한 것이 있어야 한다.

육신의 행위(일), 성령의 열매

기계는 행위(일)를 통해 생산품을 만들지만 열매는 못 만든다. No!

열매는 반드시 생명에서만 나온다, 성도의 경우 그리스도의 생명

행위: 수고, 노동, 스트레스, 노력 등

열매: 온유, 부드러움, 안에 씨가 있어 또 자라게 함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한다(요15:2, 5).

성령의 열매: (1) 성도들 구원(롬1:13), (2) 거룩한 생활(롬6:22), (3) 헌금(롬15:26-28), (4)
선한 행위(골1:10), (5) 찬양(히13:15)

갈5의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를 뜻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선물을 갈구한다(방언, 대언, 신유, 가르침 등).

그러나 선물보다 열매를 갈구해야 한다. 선물이 많으나 열매가 없으면 많은 경우 패망한다.

성령님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이다. 즉 9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열매다.

1. 사랑(고전13:4-8), 사랑은 나머지 8개의 근간
2. 기쁨(빌4:10-20), happiness가 아니라 joy(행16의 바울과 실라)
나를 비롯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3. 화평(빌4:7), 기쁨과 화평은 '거룩한 긍정',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4. 오래 참음: 대개 사람과의 관계, 상황은 인내, 하나님의 기본 품성(출34:6; 벰후3:9)
5. 부드러움: gentleman, 신사, 다윗의 고백(삼하22:36, 시18:35)
6. 선함: 하나님의 기본 품성(마5:16; 엡2:10; 히10:24)
7. 믿음: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의 믿음(고후5:7), 신실함
8. 온유: 벽돌과 물, 권위와 힘을 바르게 쓰는 것, 연약함이 아니다(마11:29; 민12:3)
9. 절제: 'self control'이 아니라 'spirit control'이다. 성령 충만(엡5:18)

25-26절: 열매가 자라려면 환경 조건이 맞아야 한다.

1.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함(예배, 기도, 찬양, 말씀, 교제, 잡초 제거 등).
2. 구원과 성화는 다르다. 성화되지 못한 성도들이 매우 많다.
3. 성령님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 열림
4. 열매는 남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딤후4:15).
5. 그 결과 주님이 영광을 얻는다(26).
6.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다.
7. 반대는 헛된 영광(지식, 유대인 혈통, 지위, 전통 등), 진노, 시기(26)

갈라디아서 강해 16

갈라디아서 6장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특징

1-5절: 짐을 나누어 진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오히려 짐을 더한다(행15:10; 마23:4).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무자비하다.

1. 다른 사람의 잘못(사람의 내재된 허물)을 볼 때 (1)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킨다. (2) 내 자신을 살핀다(1).

종교인들은 대개 용서를 모른다(요8의 간음하는 여인, 눅18의 바리새인). 5:26 참조
성령의 열매 중 첫째는 사랑(5:13; 22; 벰전4:8)

온유와 교만의 대비: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심정으로 대한다.

2. 그리스도의 법으로 대한다(요13:34; 15:12). “서로 사랑하라!” 마7:1-5의 심정
교회의 징계 절차(마18:15-35), 먼저는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 교회
율법주의자는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

3. 형제를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3-4).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랑이 심하였다(6:12-13).
남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였다(고후10:12).

4. 자기 일을 입증하여야 한다(4).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서

5.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의 일을 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6. 모두가 짐을 나누어 지기 때문이다(5).

7. 그래서 교회 일에는 경쟁이 필요 없다. 선교 보고 등 과대 포장 No!

8. 2절과 5절을 보면 나누어 져야 할 짐(사랑의 짐)이 있고 스스로 져야 할 짐(의무의 짐)이 있다.
형제/자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나누어 져야 한다. 그러나 그 형제/자매가 부모로서 져야 할 짐은 그들이 홀로 져야 한다.

6-10절: 복을 서로 나눈다. ‘코이노니아’

1. 교사/목사는 대개 영적인 복을 나눈다. 이 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성도들은 육적인 복을 나눈다(롬15:27).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담당해야 한다(고전9:11, 14; 눅10:7).

목사에 대한 예의(히13:7, 17)

2. 이렇게 물질의 복을 나누는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7-8).

헌금의 원리(고후9:6-8)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3. 씨를 심는 밭에 따라 수확이 다르다(8).

육신의 밭(5:19-21), 성령의 밭(5:22-23)

4.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차이: 영적, 육적(고후11:20)

성도들을 돈줄로(봉으로) 여기는 목사들은 없어져야 한다.

5. 이 점에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목사가 필요 이상의 과욕을 부리면 샅꾼이 된다.

6. 그냥 일만 하면 안 되고 동기가 순수하게 일을 해야 한다.

7. 기진하지 말라(시126:5-6).

8.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10).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많다.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된다(롬12:18-21).

9.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야 한다(딤후5:8). 부모/형제

갈라디아서 결론(11-18)

11절: 바울의 서신서는 주로 대필되었다(롬16:22).

끝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살전5:28; 살후3:17-18 등).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다 썼든지 혹은 11-18절을 썼다.

큰 글자로 쓴 이유: 강조하기 위해서, 눈 문제(?)

다른 서신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자유 현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은혜와 율법: 자유와 속박, 성령님과 육신, 타인을 위해 사는가, 자기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영광

바울은 사역의 동기를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가? 결국 자기의 영광

12-13절: 율법주의자

1. 자기 자랑을 위해 사람들을 모은다.
2. 십자가로 인한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려 한다(딤후3:12).
3. 그래서 거의 무력을 쓰다시피 하여 할례를 받게 한다(12).
4. 위선자다(13).

14-15절: 바울

1.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갈2:20).
2. 거기에 달린 분만 자랑한다(고전2:1-2; 1:18, 22-24).
3. 십자가의 능력: 죄와 전통의 속박에서 자유, 육신을 이기게 함, 세상을 이기게 함(요일2:15-17; 고후2:16).
4. 십자가의 목적: 새 사람(고후5:17), 할례, 신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No!(롬10:11-13)

16절: 새 사람이 되는 규칙을 이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로마서 1-8장(교회), 9-11장(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과 미래가 있다.

17절: 바울은 한 때 할례, 혈통, 전통을 자랑하던 사람(빌3:4-6)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할례 자랑

이제 그는 주님으로 인한 상처를 자랑한다(고후11:23-27).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빌3:10).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

여기의 자국은 낙인과 비슷하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교도 신들의 낙인을 받아 지니고 다녔다.
노예들도 낙인을 받았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한 것이다.

18절: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강조(요1:16-17), 갈5:1